

# 김병찬 피해자 유족 “딸 죽은지 모르고 중매 들어와” 오열

### 특가법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스토킹·감금·협박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등 조치를 받아 양심을 품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5)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스토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수사가 진행된 보복협박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찬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A씨 주거지에 침입하고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A씨가 수일 간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해 자신과 함께 있도록 한 혐의, 같은해 11월에는 법원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A씨 직장, 주거지에 접근하고 전화통화를 시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병찬은 지난해 9월 A씨 주거지의 관리실 직원에 의해 강제로 퇴거당했을 때에도 몰래 소지하고 있던 출입카드를 A씨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찬은 스토킹 혐의는 인정했으나 특수협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A씨의 양친이 양형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친은 “지난해 사고가 있던 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교통사고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을 줄은 몰랐다”며 “저희 딸은 저희들이 걱정할까 염려됐는지 아무런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딸의 생일이었다. 저 살인마가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해서 평생 감옥에서 참회하며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모친은 “사건 이후 남은 가족 모두가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고 중매가 들어오면 슬퍼지고, 종교에 매달려 보고 좋은 말씀을 들어봐도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고 오열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김병찬을 사형에 처해 달라”며 엄벌을 처할 것을 호소했다.

기준에 하기로 했던 A씨 동생의 증언은 양친의 증언으로 같았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고,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병찬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통해 김병찬이 범행방법과 도구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김병찬이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스토킹 신고 등에 양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병찬은 과거 A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거나 차량 등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연락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병진기자

## 당국 “일반인 4차 접종, 이득적어”

### 고위험군 25만1983명 4차 접종 완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일반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까지 일반인 4차 접종의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3차 접종을 한 지 5개월이 지나면서 중화항체가 감소해 재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당국은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한 4차 접종을 시행 중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 위험,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0시 기준 4차 접종자는 36명 늘어 누적 25만1983명이다.

다만 당국은 일반 성인에 대한 4차 접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 청장은 “일반 고령층에 대한 (4차)접종이 필요한 지는 백신 접종 효과와 돌파감염 발생 현황 등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3차 접

종만으로도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거의 90% 정도 유지하고 있다. 감염 예방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 전과 차단보다는 (현재의 방역체계 목적인) 중증 예방은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차 접종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자의 중증화 위험은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 97.0% 낮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자의 중증 진행 위험은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 45.2% 낮았다.

특히 3차 접종을 마친 60~74세의 중증 위험은 미접종 확진자에 비해 98.4%, 75세 이상은 93.7% 낮게 나타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 수단이다.

이날 0시 기준 3차 접종자 수는 464명 늘어 누적 3262만9321명이다.

전체 인구(5131만7389명·2021년 12월 주민등록 거주자 인구) 대비 63.6%가 3차 접종을 마친 것이다.

12세 이상 기준 69.3%, 18세 이상 성인 기준 73.4%, 60세 이상 고령층 기준 89.0%다.

최이슬기자

## “여기는 내 구역” 동료 택시기사에게 짱돌 휘두른 40대

### 피해자 112 신고하자 커다란 현무암 휘둘러

영업 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연장자인 택시 운전사에게 욕설을 하며 커다란 돌덩이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도내 택시승강장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B(56)씨의

택시 뒷자석에 올라탔다. 이어 다짜고짜 B씨에게 “왜 여기서 영업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영문 모를 분노는 계속됐다. A씨는 B씨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목살을 잡고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해 피해신고를 하자 커다란 현무암 하나를 집어 들고 B씨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공판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해 피고인이 왔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한 물건을 든 채로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며 “과거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선옥기자

## ‘비리 고발한 직원’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만원

### 집까지 찾아가 폭력까지 행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한 직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폭력까지 행사한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가 시청 감사실에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다 받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23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어떻게 나를 고발할 수 있느냐며 따지고,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폭행한 점이 모두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